



높은 목표 낮은 현실

조계종 수익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잘못돼

조계종이 수익사업으로 출시한 생수와 상조가 당초 기대보다 판매율이 낮아 개선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승려 노후복지와 사회적 불교 가치 실현 등 종단 사업 진행을 위한 필요기금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0년 12월부터는 석수&퓨리스와 제휴해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이하 감)'를 시판중이다.

종단 차원의 상조서비스는 2010년 대형상조회사들의 비리가 속출하면서 상조에 가입했던 불자들이 피해를 입자 필요성이 대두돼 비롯됐다. 생수 판매는 새로운

리고 있는 500ml의 경우 12월 2만 9440개, 1월에는 4만8560개, 2월에는 8만2960개가 판매됐다.

석수&퓨리스 관계자는 "일본 지진 피해를 위해 생수를 지원하면서 이미지가 상승되는 등 아직 초반이지만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단과 업체의 기대와 달리 제작 개별 사찰과 신도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각 사찰에서는 상조서비스를 문의하는 신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감'의 경우는 교구본사 중에도 판매되지 않는 사찰들도 있다. 생수가 아이템 특성상 산중사찰보다는 주로 도심사찰에서 판매가 많이 이뤄지는데, 도심불자들의 경우 각자 선호하는 생수브랜드가

신도·사찰 반응 미온적

종도간 공감대 우선돼야

수익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업체로부터 업무 협약을 제안 받았다.

종단은 당초 전국 20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대상으로 상조서비스와 생수를 시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각 사찰에서 50명씩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10만명 이상은 모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감'의 판매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목표에 따라 종단은 교구본사와 말사 신도들의 관심과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최대한 홍보를 집중해 판매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이 된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 종단은 가입자 현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생수 판매는 공양물로 사용되면서 상조 가입보다는 나은 편이다. 석수&퓨리스 따르면 가장 많이 팔

달라 '감'을 단순한 공양물로만 본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 은해사 종무소 관계자는 "산이 가까워서 다들 약수를 먹기 때문에 '감'에 대한 수요가 낮다. 상조에 대한 문의도 적다"고 말했다.

도심사찰인 봉은사 관계자는 "공양물로 생수를 올리던 불자들 숫자만큼 '감'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조사해 제휴·판매했다면 각 사찰 수익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상품·서비스와 차별성이 없는 점은 상조서비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신도들은 Btn 불교로 상조와 종단이 출시한 상조서비스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부 장영욱 팀장은 "사부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몫이다. 종단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기범·노덕현 기자



"차한 잔 드세요"

종립학교인 서울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는 4월 6일 교내 연화법당에서 다례수업을 실시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다례수업은 2009년부터 매년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해 왔다. 서울 청량사 혜동 스님의 지도하에 주인과 손님으로 마주 앉은 1학년 학생들이 차를 나누며 다례를 익히고 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데..."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 동참 호소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불사는 우리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장래를 이끌어갈 장정들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숭고한 포교활동은 중단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4월 6일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육군훈련소 법당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동참을 호소했다.

자광 스님은 "2012년 5월말 완공될 3500여 명 수용 규모의 군법당이 불사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당 신축 불사금 모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105여 역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작불사이다. 2009년 불사추진 선포 이후 2010년 5월 신축불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약 정액 포함 55여 억 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해진 경제난 등으로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뜸해진 상태이다. 공사 진행은 군종교구가 3월 24일 GS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자광 스님은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 적은 시간,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남로고령화·여성화되는 한국불교의 문제를 군



포교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는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10만명 후원 동참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님오신날 등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각 사찰 신도들의 ARS동참 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후원계좌 477401-01-179603(예금주: 군종특별교구), ARS: 060-700-0108

이아은 기자

봉축등 4월 26일 저녁 7시 서울광장서 정치인 없이 점등

불기 2555(201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시장 앞 봉축조형물 점등으로 시작된다. 점등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불교계 인사로만 진행된다.

올해 서울광장에 밝혀지는 '석가탑등'은 높이 18m로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원형으로 한지로 제작됐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석가탑등 점등을 계기로 불교 문화제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모바일로 즐기는 봉축 연등축제 어플 출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2011 연등회 연등축제'를 4월 1일 선보였다.

이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연등축제의 여반과 특징, 축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전 연등축제 사진을 비롯해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연등축제까지 남은 일수 또한 표기된다.

연등축제 어플리케이션은 전국 사찰에 게시되는 연등축제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다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사 고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주제: 부처님오신날 관련 이야기나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부처님
응모기간: 4월 1~30일
분량: A4용지 2매 내외
접수방법: 이메일 hyunbul@gmail.com
*응모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함께 기재

응모작 중 봉축 특집호에 게재된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2004-8252

정치인 초청금지

개별 신행은 허용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승)은 4월 1일 민족문화추진회 주최 불교행사 실천지침을 전국 교구본·말사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실무지침에서 "종교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정부관계자와 정치인 개인의 신행활동은 허용하나, 별도의 의전(축사, 자리배정 등)은 하지 않는다 △스프레드 등으로 진행하던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등담아우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세부지침을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831호 CONTENTS

▶5 특집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5 법향을 찾아서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



▶11 현장속으로 미항사 템플스테이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의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元老스님들께 올립니다 : 서암 종정 퇴임인사

不徳한 사람을 宗正으로 推戴시켜 宗團과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들여 무어라 謝罪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千六百餘年 悠久한 佛祖의 遺徳이 一時에 沈沒되는 듯 實로 그 罪業이 莫重함은 汗出 背로 소이다. 오늘 그 重罪를 切感하고 모든 所任을 元老大徳앞에 正式으로 되돌려 드리오며 從容히 宗團 밖으로 물러나 血液의 懺悔로 殘日을 보내겠습니다. 本人에게는 何等傳達이 없이 他處에서 不信任決議를 하였는지는 알리지 않는 疑惑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라옵건대 元老大徳스님들께옵서는 賢明하옵신 衆智를 모아 앞으로의 曹溪宗團이 바른 軌道에 進入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伏望하옵니다. 물러 날 機會를 얻지 못 하와 오늘까지 늦었사오며 오늘 비로소 처음 元老會議席上에서 正히 退任人事를 올리니이다.

위의 글은 서암 종정께서 94년 불법사태(佛法沙汰)의 와중에서 종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며 남기신 자필 退任人事이다. 위 퇴임인사 관련하여 호법에중하는 마음에서 서암, 월하 두 분 종정예하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과 종헌규정에 관한 권력심판에 의해 많은 원로·중진 승려들을 회생시키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송월주사와 김월서사의 폐불사건(廢佛棄釋)의 비법(유행)을 공개하기로 했다.

1. 급년 말, 차기 종정 추대를 앞두고 일부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 장악을 통한 종헌의 도전(총무원장과 종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열반한 원로의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원로의원은 사임

권고를 받고 원로회의(4·15)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런가하면 94년 4월 10일자 질보사 원로회의에서 송월주사의 서암 종정 불신임안이 채택되고, 법정에서는 "부처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할 수가 있다"는 망어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서암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이 송월주사에서 비롯되고, 그가 법정에서 비법의 종정 불신임이 정당하다고 확인 해준 셈이다.

2. 송월주사는 앞서 언급한 서암 종정뿐만 아니라 개혁종단의 초대 종정 통도사 윤월하 방장까지 종헌상의 종단 분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질멸쟁법)에 관한 불법집회(승려대회)에서 불신임케 한 당사자이다. 불설(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佛法僧 三寶에 대한 不敬(罪)이자 불조 이래 전승해 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성스러운 법통(종통)을 불신(부정)하는 반종행위이다. 이는 현행 승려법 제46조 <불신사유> 1호 해당하는 중죄이다. 또한 송월주사는 이철조 전 불국사 주지의 공개 항변 등에 비추어 분명 사미승으로서 비구를 자처하는 등 망어(妄語)하고, 불법 승삼보를 비방(誹謗)하는 자로서 율장에 의하면 멸빈(滅擯)처분의 대상이다.

3. 송월주사의 원로회의 진출과 함께 원로회의 의장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진 김월서사의 종권 및 사찰 소유와 관련한 전력이다. 김월서사는 앞서 언급한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질멸쟁법)을 비롯한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관한 불법집회(94년 4월 10일 승려대회)를 통한 종권전탈, 이른바 쿠데타 종권의 초

심·재심 회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회계위원으로서 계율의 제재법과 종단 최상의 징계 규범이기도 한 멸쟁법을 위반해가며 여법한 종정 교시를 받들었던 원로·중진 승려들을 멸빈시킨 장본인이다. 문제는 김월서사를 중심으로 일부 원로까지 원로회의 장악에 합세하고 있어 심히 종단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김월서사는 박비룡 노사께서 창건한 제주 천왕사를 노사의 뜻에 반하여 사유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계위원으로서 화동사찰 불국사 연구권을 갖고 주거하던 현근스님은 비법으로 멸빈시키고, 현근스님 상좌 선관 불국사 주지는 사표를 강제로 받아 자신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이는 출가사문으로서의 물론 속세 사람으로서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김월서사는 2006년 재심위원장으로 1998년 종단사태와 와중에 멸빈된 승려들을 사면할 당시 자신이 주지인 불국사 연구권을 가진 현근스님만을 독단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러나 2010년 4월 법규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그가 사면 복권되었지 않았는가. 이는 그가 얼마나 사적 이익을 위한 감정에 사로잡혀 불공정한 판단을 했는가를 말해 준다.

5. 김월서사께서는 '부당하게 얻은 명리를 버리는 것이 성불의 길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기하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접수한 불국사를 떠나시고, 천왕사를 비룡노사의 유지에 따라 비룡노사의 본사인 오대산과 비룡문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팔로써 사면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로회의 의장 종산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회의 의원스님들과 종회의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